PO 미디어데이…마지막엔 누가 웃을까

키움 장정석(왼쪽) 감독과 SK 염경엽 감독은 현대에서 함께 선수로 뛰었고 프런트에서 먼저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감독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염 감독이 히어로즈 사령탑 시절, 장 감독은 운영팀장을 맡기도 했다. 13일 PO 미디어데이에서 두 감독이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PO 운명을 쥔 최정 vs 박병호…'토종거포'를 바라보는 두 감독의 시선

"최정이 PS홈런 경신" "병호, 홈런 안 쳐도 돼"

〈SK 염경엽 감독〉 〈키움 장정석 감독〉

나란히 'PS 통산' 10개의 홈런
이승엽의 14개 최다기록 가시권
최정 "매 타석 출루가 더 중요해"
박병호 "작년 아쉬움 설욕할 것"

KBO를 대표하는 두 거포 SK 최정(왼쪽)과 키움 박병호는 포스트시즌 통산 홈런 기록이 똑같다. 가을야구에서만 각각 10개의 홈런을 친 둘은 플레이오프(PO)에서 격돌, 이승엽(14개)의 최다홈런 기록에 나란히 도전한다. 13일 인천에서 열린 PO 미디어데이에서 각각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두 선수.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리그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두 토종 거포가 가을야구 무대에서 제대로 맞붙는다. SK 와이번스 최정(32)과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3)의 이야기다.

SK와 키움은 14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맞대결을 벌인다. 두 팀은 하루 전인 13일 인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각 팀을 대표하는 홈런타자를 내세워 기선제압에 나섰다.

SK 최정과 키움 박병호는 KBO 포스트시즌(PS)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이다. 최정은 PO와 한국시리즈(KS)에서 각각 5개의 홈런을 터트려 PS 통산 10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이에 맞서 박병호는 LG 트윈스와의 준PO에서 홈런 3개를 몰아 쳐 최정과 동일하게 개인 통산 PS 10개의 홈런을 마크하고 있다.

둘은 이승엽(은퇴·14개)의 PS 통산 최다홈런 기록을 가시권에 둔 타자들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둘의 홈런을 바라보는 양 팀 감독의 시선은 매우 상반됐다.

염경엽 SK 감독은 미디어데이에서 "일단 두 선수가 홈런을 많이 때려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선사했으면 한다. 그러나 나는 SK 감독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신기록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정석 키움 감독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장 감독은 "박병호, 홈런 안 쳐도 된다"고 단언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중심에 있는 선수다.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 홈런 신기록은 누가 기록하든 팬들에게 큰 볼거리다. 좋은 기록이 쏟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두 타자 역시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다. 최정은 "내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매 타석 출루만 하자는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거기에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호는 "준PO에서 우리 팀이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이번 PO에서도 꼭 승리하겠다. 작년의 아쉬움을 설욕하고 싶다"고 말했다. 1차전에서 상대 에이스 김광현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 전적이 안 좋았던 투수다. 어떻게 칠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려 한다. 나쁜 공을 휘두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선수에 대한 감독의 기대는 이후 답변에서도 같은 기조를 보였다. 염 감독은 시리즈를 지배했으면 하는 선수로 "투타 핵심인 김광현과 최정이다"고 말했으나 장 감독은 "준PO부터 숨은 MVP는 팀이었다"고 전해 즉답을 피했다. 거포에 대한 기대감에서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두 사령탑의 머리싸움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까.

인천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PO는 '염경엽 시리즈' 이번엔 흥행불 켜질까

작년 PO 맞대결 매진 한 차례도 없어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맞붙은 준플레이오프(준PO)의 흥행 열기는 기대에 못 미쳤다. 4차전까지 매 경기 접전의 연속이었지만 만원관중은 2차례에 그쳤다. 6일 1차전(고척·1만6300명)과 9일 3차전(잠실·2만5000명)만 매진이었다.

올 정규시즌 홈 관중 최하위(총 45만3886명·평균 6304명) 키움의 흥행 잠재력이 포스트시즌(PS)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적어도 준PO까지 드러난 결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일하게 홈 100만 관중을 돌파(100만400명)했던 LG의 힘만으로는 관중석을 모두 채우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SK 와이번스와 키움이 대결하는 PO는 어떨까. 이 역시 전망이 썩 밝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실례에 비춰보면 그렇다.

키움과 SK는 지난해에도 PO에서 격돌했다. 5차전까지 명승부를 거듭했다. 그러나 관중은 1차전 2만4219명→2차전 2만3642명(이상 인천)→3차전 1만3839명→4차전 1만1683명(이상 고척)→5차전 1만8562명(인천)으로 단 한 차례 매진도 없었다. 반면 두산 베어스와 SK가 자웅을 겨룬 지난해 한국시리즈(KS)는 6차전까지 매 경기 2만5000명 만원사례를 이뤘다.

지난해 PS와 올해 준PO 관중추이대로라면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PO 역시 흥행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주목해볼 만하다. '염경엽 시리즈'라는 두 팀만의 독특한 인연이다.

염경엽 SK 감독(51)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넥센(현 키움) 사령탑을 지냈다. 2016시즌을 마친 뒤 넥센을 떠나 SK 단장으로 변신했다. 그 뒤로 두 팀 간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염 감독이 올 시즌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한층 주목받는 사이가 됐다. 장정석 키움 감독(46)은 당시 1군 매니저, 운영팀장으로 염 감독을 보좌했다.

SK와 키움의 PO 성사로 한솥밥을 먹던 여러 인연들이 얽히고설킨 채로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치게 됐다. 이 같은 속사정을 잘 아는 두 팀의 팬들이 결집력을 발휘한다면 PO 흥행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내와 더불어 장외에서도 흥미로운 매치업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사제대결 양보 없다"…키움 제자들 필승 다짐

염경엽 감독 "옛 제자들 잘했으면…" 박병호·조상우 "저희가 이기겠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오프(PO)에서 마주하게 된 염경엽 감독(SK 와이번스)과 그의 옛 제자 박병호, 조상우(이상 키움 히어로즈)는 서로 '필승'을 각오했다.

참으로 알궂은 운명이다. 한국시리즈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염 감독을 중심으로 한 '사제 대결'이 성사됐다. 2013~2016년 넥센(현 키움)을 이끌었던 염 감독은 14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시작하는 PO 무대에서 과거 자신이 직접 지도한 제자들과 맞대결을 펼친다. 한 해의 가장 큰 수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옛 정'은 사치다.

PO 출발을 하루 앞두고 인천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는 은근한 신경전이 오갔다. 때마침 키움에서는 투타의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한 박병호와 조상우가 나란히 참석했다. 염 감독은 "그동안 키움에서 가장 성장한 선수는 유격수 김하성이다. 정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성숙해졌다"고 칭찬하며 "박병호, 서건창, 김하성을 비롯해 키움에는 조심해야할 선수가 많다"고 견제했다. 이어 "옛 제자들이 잘하면서도 경기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키움 조상우

이에 맞선 박병호와 조상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LG 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 시리즈를 '홈런'으로 정복한 박병호는 "저희가 이기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조상우의 마음도 같았다. 그 역시 준PO 세 경기서 4이닝을 6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자신감이 한껏 오른 터였다. 조상우는 "열심히 던져서 저희가 이기겠다"고 힘을 보탰다.

인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김광현 vs 브리검…'80.6% 확률' 누가 잡을까?

〈1차전 승리팀 KS진출〉

김광현 키움전 2승2패 ERA 2.36
브리검 인천 원정 ERA 1.50 강점

예상대로 각 팀의 1선발이 시리즈 선봉으로 출격한다. SK 와이번스 김광현(31)과 키움 히어로즈 제이크 브리검(31)이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맞붙는다.

SK와 키움은 14일 오후 6시30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PO 1차전을 치른다. 두 팀은 하루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투수를 발표했다.

염경엽 SK 감독은 "1차전 선발은 모두가 예상하신대로 김광현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팀 에이스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브리검이 1차전에 나간다. 1선발 역할을 계속 해줬고, 인천 원정에서도 좋은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올해 정규시즌 31경기에서 17승6패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했다. 190.1이닝을 소화해 팀 에이스로서 제 몫을 다 했다. 키움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남겼다. 4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2.36으로 좋았다.

브리검 역시 1선발다운 활약을 보였다. 28경기에서 13승5패 평균자책점 2.96을 마크했고, 포스트시즌(PS)에 들어와서는 LG 트윈스를 상대로 준PO 1차전에서 6.2이닝 무실점으로 최고투를 펼쳤다. 올해 SK를 상대로는 세 경기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4.58을 기록했는데, 인천 원정한 경기에서는 1승무패 평균자책점 1.50, 6이닝 2실점(1자책)으로 좋았다.

둘은 2018년 PO의 안 좋은 기억을 털어낸다는 공통과제도 가지고 있다. 김광현은 지난해 히어로즈를 상대로 두 경기 평균자책점 6.17을 기록하며 부진했고, 브리검 역시 두 경기에서 6.52로 좋지 않았다.

개인적인 '설욕'을 바탕으로 팀의 선취 1승을 안기려는 두 에이스의 맞대결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역대 단일리그 PO에서 1차전 승리를 거둔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확률은 80.6%(31번 중 25번)다.

인천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